

캔버라 한인성당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1 (나는 믿나이다)	221 (받아주소서)	496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4 (찬양하라)

제 1독서 | 열왕기 하권 4,42-44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주님께서 이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화답송 |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좌)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우)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펼치시어,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 주시나이다. ◎

○(좌)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

제 2독서 | 에페소서 4,1-6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알렐루야

복음 | 요한 6,1-15

Today's Gospel, <John 6:1-15>

Jesus went off to the other side of the Sea of Galilee - or of Tiberias - and a large crowd followed him, impressed by the signs he gave by curing the sick. Jesus climbed the hillside, and sat down there with his disciples. It was shortly before the Jewish feast of Passover.

Looking up, Jesus saw the crowds approaching and said to Philip, 'Where can we buy some bread for these people to eat?' He only said this to test Philip; he himself knew exactly what he was going to do. Philip answered, 'Two hundred denarii would only buy enough to give them a small piece each.' One of his disciples, Andrew, Simon Peter's brother, said, 'There is a small boy here with five barley loaves and two fish; but what is that between so many?' Jesus said to them, 'Make the people sit down.' There was plenty of grass there, and as many as five thousand men sat down. Then Jesus took the loaves, gave thanks, and gave them out to all who were sitting ready; he then did the same with the fish, giving out as much as was wanted. When they had eaten enough he said to the disciples, 'Pick up the pieces left over, so that nothing gets wasted.' So they picked them up, and filled twelve hampers with scraps left over from the meal of five barley loaves. The people, seeing this sign that he had given, said, 'This really is the prophet who is to come into the world.' Jesus, who could see they were about to come and take him by force and make him king, escaped back to the hills by himself.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대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이백 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오천 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 빵 다섯 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열두 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가톨릭교회 교리 - 초(Candle)
'전례 안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드러냄'



실내 또는 캠핑장에서 우리는 손쉽게 LED등을 사용하여 빛을 밝힐 수 있고, 그로 인해 어둠 속에서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에 불을 붙이는 초를 사용할 일이 별로 없고, 일상에서가 아닌 특별한 날 분위기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촛불이 주는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일 잔치도 아니고, 흰하게 LED등을 사용하면서도 매번 초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2개, 어떤 때는 4개 그 이상도 사용하는데, 바로 '미사'를 봉헌할 때입니다. 성전에서 미사를 거행할 때마다 매번 초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특별한 목적보다는 실질적인 이유로 미사 때 초나 등불을 사용하였습니다. 저녁기도를 바칠 때, 빵 나눔 예식을 거행할 때 등, 어둠을 밝히기 위한 현 실적인 용도였습니다. 그 후 4세기경부터 초는 '세상의 빛(요한 8.12)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교부들은 별을 동정 마리아로 생각하였고, 별에서 나온 밀랍으로 만든 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는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추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둠 속에서 해매는 사람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므로, 초는 주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한편, 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의미합니다. 초는 자신을 녹이면서 빛을 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므로 초는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 초를 미사 안에서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현존을 드러냅니다. 전례 등급에 따라 다양한 수의 초를 사용하여 성찬례의 기쁨과 전례의 중요성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3등급인 연중 시기의 평일과 기념일에는 2개, 2등급인 연중 시기의 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4개, 1등급인 대축일과 성주간에는 6개의 초를 켜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례 때 받은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부활초에서 붙인 불을 세례 초에 건네받았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을 건네받음으로써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초를 통해 그리스도의 현존을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사명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 5,14)

공지 사항

1. 공동체 식사 및 간식 나눔 재개

8월부터 공동체 식사 및 간식 나눔이 다시 시작됩니다. 나눔을 위한 준비와 뒷정리를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첫째 주 (8월 4일): 식사 나눔
- * 셋째 주 (8월 18일): 간식 나눔

2. 성모 승천 대축일 한인 미사 안내

- 일시: 8월 15일(목), 저녁 7시 미사
-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는 가톨릭 교회의 의무 대축일 (Holy day of Obligation)입니다. 한인 미사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께서 거주지 근처의 로컬 성당 미사에 참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미사 참례자 수 |

7월 14일	유아·청소년: 20명	성인: 50명
7월 21일	유아·청소년: 49명	성인: 28명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전례 독서 봉사자 |

이번주 (7월 28일)	양홍석 베드로, 안영규 필립보
다음주 (8월 4일)	이상명 다니엘, 이재희 루시아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이번주 (7월 28일)	마태오반
다음주 (8월 4일)	요한반

| 우리들의 정성 | (7월 20일 ~ 7월 26일)

봉 헌 금	\$358			
교 무 금	\$820			
권묘순	김요한	남궁영근	서미숙	손재호
양명식	양홍석	윤현태	이지영	장호훈
전인철	정수민	정은영	주정자	

| 기도 지향 |

- * 이원순 글라라 자매님의 건강을 위해
- * 예비신자 - 문서 자매님과 양주영 자매님을 위해
- * 가르멜 수녀원, 성체의 안젤라 수녀님을 위해
- * 첫영성체를 준비하는 아이들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